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특징*

- 미국 NARA와 국가기록원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the Publication Program in Archives: Focusing on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 창 오 (Chang-Oh Jung)**

이 해 영 (Hae-young Rieh)***

목 차

- | | |
|--------------------|--------------------------|
| 1. 서론 | 2.2 기록물관리기관 출판물의 유형 및 특징 |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기록물관리기관 출판프로그램 사례 분석 |
| 1.2 선행연구 | 3.1 미국 NARA의 출판 프로그램 |
| 1.3 연구방법 | 3.2 국가기록원 출판 프로그램 |
| 2.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 | 4. 결론 및 제언 |
| 2.1 기록물 출판의 개념 | |

<초 록>

국내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출판프로그램은 휴대성이 좋고 서비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소장 기록물의 검색도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기록관 이용 안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발간되고 있는 출판물의 유형을 조사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출판 과정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앞으로 출판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록물관리기관, 출판프로그램, 출판, 편찬, 확장서비스

<ABSTRACT>

Both domestic and overseas archives provide various forms of outreach services including exhibitions, educations, and publications for extended user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program is portable and has excellent effects within its scope. Providing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about archives is significant because they can be important resource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provide good guidelines for archival us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ation programs, types of publications, the publishing organizations, and publication process managed by both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ublishing programs of the two archives, the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ation program of NAK and gav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Keywords: archives, publication program, publication, publishing, outreach services

* 본 논문은 정창오의 석사학위 논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 프로그램 현황과 특징』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javelin5@naver.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17년 11월 3일 ■ 최초심사일: 2017년 11월 3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6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27,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1.001>>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기록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 기록관에서 많은 양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기록관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수동적인 보존 장소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기록정보의 활용이라는 기록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기록관이 이용자가 직접 요구하는 기록물을 찾아 제공하는 수동적인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모르는 기록정보는 한번도 활용되지 못하고 문서고에만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록관은 직접적인 원문 공개 서비스 이외에도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을 알리고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 기술,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기록의 확장(outreach)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의 확장 서비스는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기록관이나 소장 기록물을 알리는 홍보활동이나 출판, 전시,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출판 프로그램은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NARA(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는 1941년부터 출판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장기록물의 소장정보를 담은 목록집 형태의 출판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기록정보 이용가이드, 자료집, 잡지, 교육용 교재 등 출판물의 주제와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국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도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마다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장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출판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지, 또 그 결과물로 나온 출판물의 특징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 서울시 기록원과 경상남도 기록원이 첫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개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들도 출판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출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모범사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어서 기획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영역이던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도입은 다른 모범사례의 벤치마킹이 가장 쉽고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다른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외의 어떤 다른 기록

물관리기관보다 출판서비스와 관련된 역사가 길고, 우수한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NARA와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즉 두 기관의 출판물을 형태별로 나누어 그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출판 계획 수립과정과 출판에 필요한 기록물 선별과 출판이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확인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관련 규정 등을 살펴 각 기관 별 출판 프로그램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이 갖는 한계점을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출판물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록물관리기관 및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등 다양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출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관들이 다양한 출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아직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출판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편찬하여 출판하는 출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많지는 않으나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기록보존소의 부가가치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출판 서비스를 다루는 연구가 있었다. 김

상호(1998)는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으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과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출판 및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구분했다. 그 중 출판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기록물 이용을 돕기 위해 발행한 이용안내책자와 기록물을 토대로 발행한 연구자료나 학술회의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보존소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써 출판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상호(2003)는 미국·영국·호주의 지방기록보존소 중 총 14개의 지방기록보존소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유형과 내용, 성격,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록보존소에서는 단행본·팜플렛·리플렛·잡지·연차보고서·지도·문서·카드·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온라인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행물은 기록보존소의 시설 및 서비스 안내, 소장 기록물의 검색 및 이용 촉진, 지역 관련 특정 주제의 연구 및 학교 교육 지원, 기록관의 행사 기념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앞의 연구에 이어 김상호(2004)는 미국, 영국,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의 형태와 주제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외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하는 교육사료집은 소장기록물을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잠재적인 이용자에게 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소장기록물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심세현, 이성숙(2010)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서비스 방안으로서 출판서비스를 제시하며 국가기록원의 출판서비스 현황을 조사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현재 국가 기록원 출판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독창적인 기획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판의 기획방향이 다양해지고, 출판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여진(2014)은 중국의 기록관리 제도 중 아키비스트가 직접 기록물을 연구하고 편찬하는 활동인 편연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에서도 편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 규정인 '당안 관리 규정'에는 소장기록물을 연구하고 편찬하여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편연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그에 맞게끔 아키비스트 교육과정에서 편연활동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사업 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편찬과정에서 아키비스트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국내 아키비스트 교육에서도 편연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출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는 Jørgensen(1983)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 국가의 국립 기록보존소의 출판물 현황과 출판 프로그램의 기원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Gelting(1990)은 덴마크 국립 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들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다. 덴마크 국립 기록보존소는 업무 규정에 아키비스트의 하루 업무 시간 중 일정 시간을 연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하여 아키비스트의 연구 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그 연구결과물이 출판물로 제작되어 이용자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록학 분야에서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및 출판프로그램에 관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단순히 출판프로그램의 현황만을 다루고 담당 조직 및 출판 프로세스 등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 출판프로그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참고하고 활용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물은 인쇄자료 외에도 마이크로필름, CD, 웹 콘텐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인쇄자료도 있다. 비인쇄자료는 인쇄자료의 내용을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웹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과 음성,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웹 콘텐츠로 개발되는 경우가 있다. 웹기반 콘텐츠의 주제 선정과정은 일반적인 인쇄 출판물과 동일하지만 그 제작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적인 측면과 멀티미디어 측면이 많이 반영되어 인쇄형태의 출판물 제작과정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웹 콘텐츠로 제작된 사례는 제외하고, 기획과 편집단계를 거쳐 인쇄자료로 출판되거나 출판물을 그대로 디지털화하여 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물만을 출판 프로

그램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미국 NARA는 가이드, 자료집, 교육교재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출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사례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NARA의 출판물 현황은 대부분 웹사이트에 있는 출판물 목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NARA의 출판담당 조직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문헌 및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등의 내용을 통해 NARA의 출판 조직과 그들의 활동을 파악하였다.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매년 편찬계획을 세워 다수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어 국내 사례 대상으로 정하였다. 국가기록원 출판 프로그램 사례는 국가기록원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와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록백서, 발간자료 목록집 등을 조사하여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출판한 출판물 현황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출판 프로세스는 웹사이트의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출판업무 관련 문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NARA와 국가기록원에서 운영 중인 출판물의 현황과 출판 조직 및 그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두 기관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확인해보고, 분석 결과 제시되는 시사점을 통해 국내 기록물관리기관 출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반영하면 좋을 내용을 제안한다.

2.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

2.1 기록물 출판의 개념

기록학용어사전(2008)에서 ‘출판’은 기록관이 소장 기록을 널리 홍보하고 기록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각종 팸플릿, 리플릿, 기관지 등을 간행하는 활동이며, 최근에는 웹 사이트, 동영상, CD-ROM,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등의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있다. 같은 사전에서 ‘편찬’은 특정 주제나 사건에 관한 기록을 편집하거나 영인하여 출판하는 활동이며, 기록관에서는 소장 중인 희귀자료나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학자와 아키비스트가 협력하여 편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술 활동을 자극하며, 기록 원본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편찬 시 기록을 그대로 영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의 내용을 해석하고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기록학용어사전, 2008). 용어사전은 출판과 편찬 모두 영문은 publishing과 compilation으로 표기하며, 넓은 의미에서 편찬은 출판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편찬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출판이라고 보았다.

2.2 기록물관리기관 출판물의 유형 및 특징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에서 편찬하는 출판물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먼저 기록관에서 발행되는 단행본은 소장기록물에 관한 자료집, 해제집 및 목록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

〈표 1〉 기록물관리기관 인쇄 출판물의 유형

유형	출판물 종류
단행본	자료집, 해제집, 소장자료 목록집, 가이드 등
소책자	기록관 이용 안내서, 주요 기록물 검색 가이드 등
잡지, 연차보고서	기록관 소식지, 기록관리학회지, 기관의 백서 등
지도	소장지도의 복제본 등
문서	소장고문서의 복제본, 기념품 등
포스터, 카드류	기록관에서 발행된 포스터 복사본, 소장기록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엽서, 달력 등

행본으로 발행되는 소장기록물 목록집은 기록관 출판물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대부분 유료지만 저가로 제공되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자를 위해 기록관에서는 특정주제에 관한 사료집, 연구서 등이 발행된다. 그리고 기록관이 속한 지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기준, 원칙 등을 단행본이나 소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김상호, 2003).

소책자는 기록관 이용 안내에 관한 안내서 및 기록관리에 관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안내서에는 일반적으로 기록관의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가 일반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다. 안내서에 주로 수록되는 정보는 기록관의 임무와 기능, 소장 자료의 범위,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시간, 기록관의 위치, 교통, 연락처 등이다. 자주 이용되는 기록물의 검색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기록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기록관리에 관한 소식과 기술정보, 또는 논문을 담고 있는 계간의 회보, 또는 연구지 등이 있다. 기록관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는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김상호, 2003).

지도는 기록관에서 사진과 더불어 장서를 구

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기록관에 소장된 오랜 지도 가운데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일반인이나 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서를 선별하여 복제본을 만든다. 저명한 인사나 기념할만한 행사와 관련된 오랜 문서의 복사본은 기록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기념품의 하나로 제작되기도 한다. 포스터와 연하장, 크리스마스카드, 우편엽서 등의 카드류, 사진컬렉션 등은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자료 가운데에서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선별해 제작된다(김상호, 2003).

기록관의 출판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주로 홍보 활동과 연결되며, 그 결과물이 기록관과 소장기록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 도구로 사용되거나 연구의 산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록물 이관을 해야 하는 내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절차와 이관 과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출판하여 이들의 편의를 돕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FAQ나 검색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출판물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한 연구절차와 관련 기록을 소개하는 자료나 소장 기록에 대한 가이드 또는 해제집을 출판하기도 한다(김지현, 2013).

3. 기록물관리기관 출판프로그램 사례 분석

3.1 미국 NARA의 출판 프로그램

NARA는 자체 출판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 자료, 비인쇄자료, 웹기반 온라인 기록콘텐츠 등 다양한 출판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NARA의 출판 서비스는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소장기록물의 위치정보를 담은 인벤토리 등 연구자에게 기록물의 소장정보를 제공하는 검색도구의 하나로 출판물을 제작했다(NARA, 2009b). 시대가 흐르면서 단행본, 연구보고서, 교육용 교재, 전문가용 교재 등 NARA의 출판물의 범위는 방대해졌다.

NARA의 출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첫째, 기술의 발전이다. 시대에 요구에 맞춰 NARA의 홈페이지도 발전하고, 웹상에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소장기록물을 디지털화하면서 기록물의 출판서비스도 발전하였다. 둘째, 열람서비스, 이용자 확장서비스 등 소장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NARA의 이용자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출판 서비스도 발전했다. NARA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밀 문서 및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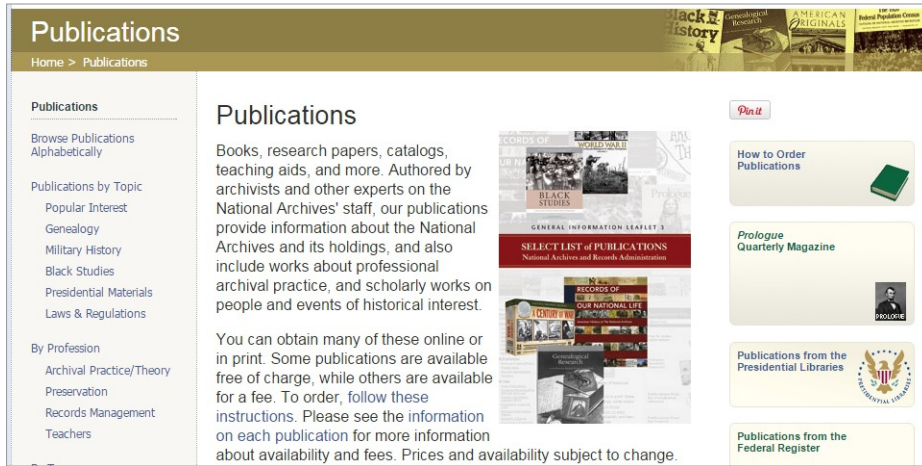
각 지역의 주립기록관 시설이 확장되고 아웃리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출판 서비스도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온라인 북 스토어의 등장이다. 이용자들이 웹상에서 출판물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반영해 NARA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판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북 스토어가 등장하면서 출판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넷째, 새로운 출판 및 전시 서비스를 위한 수많은 스폰서들의 후원과 협력업체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출판 서비스가 발전했다. 특히 멀티미디어 분야 업체와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었다(NARA, 2009b).

〈그림 1〉은 NARA 홈페이지의 출판물(Publications) 페이지이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NARA에서 발간한 출판물을 알파벳 순, 주제별, 전문가용 출판물, 형태별, 포스터 및 복제본, 프로로그 매거진, E-book, 어린이용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았고, 각 출판물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 NARA의 출판물들을 종류별로 살펴보고, 출판 담당 조직을 살펴본 후, NARA 출판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3.1.1 미국 NARA의 출판물 종류¹⁾

NARA는 기관 내부의 아키비스트나 외부의 관련 주제 전문가 및 단체에서 집필한 가이드, 자료집, 연구보고서, 목록집, 교육용 교재 등의 출판물을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인쇄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NARA 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은 〈표 2〉와 같다.

1) 『Select list of publications』(NARA, 2009b)와 NARA 출판물 웹페이지(www.archives.gov/publications)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림 1〉 NARA 출판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
출처: NARA 홈페이지, Publications

〈표 2〉 미국 국립 기록관리청(NARA) 출판물의 형태와 종류

구분	내용	주제 및 출판물의 예
가이드, 목록 및 인벤토리 (Guides, Catalogs & Inventories)	소장기록 중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군(Group), 시리즈(Series) 관련 기술정보, 마이크로필름의 제목, 기록 이용정보 등을 연구자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 의회, 전쟁, 족보학 등의 다양한 주제별 가이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족보학, 주요 연방 기록 등의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 목록 NARA에서 소장 중인 등대 도면과 관련된 특별 목록집 족보학 관련 소장 기록물 목록(소책자 형태로 발행)
참고정보안내서 (Reference information Papers)	소장기록물 중 여러 다른 기록물에 속한 자료 중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왕국과 소련 정부, 중세시대, 1930-60년대 범죄기록, 제국의 통계정보 등의 주제 관련 정보서
교육용 출판물 (Publications for Teachers)	초·중·고등학생용 역사교육 커리큘럼에 있는 주제에 관한 기록을 활용해 설명한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장전, 여성청원운동, 헌법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교재 문서를 활용한 수업(Teaching With Documents)
기록전문가용 출판물	기록학 관련 이론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 기록관리 업무 정책, 매뉴얼 등의 내용을 책자, 브로셔, 팸플렛, 포스터 형태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학 관련 고전 이론서 기록보존을 위한 물리적 기술 정보(Technical Information) 등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기록관 운영 각종 기록관리 업무 관련 정책 등
일반정보 소책자 (General Information Leaflets)	기관 소개, 위치, 소장기록물 등 기록관리기관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용 안내를 담은 소책자 형태의 출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RA, 워싱턴 레코드 센터, 전자기록 센터, 대통령 도서관 등 소개
법률 관련 출판물 (Legal Publications)	'미연방관보부'에서 담당하여 발간하는 공공 법률 관련 및 관보형태의 정부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의 연방 관보(the daily newspaper of the Federal government) 공공법 및 개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통령 문서 규정
자료집	특정한 주제별로 관련 사건 정보를 소장기록물을 활용하여 출판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사,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 뉴딜 정책, 미헌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집
잡지 (Magazine)	NARA, 지방기록보존소, 대통령 도서관 등의 소장자료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 및 기타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롤로그 매거진(Prologue Magazine)
기타	기념품 및 포스터 형태의 다양한 출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차 세계대전, 자유현장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등 노예해방 150주년 기념 어린이용 색칠자료

1) 가이드, 목록 및 인벤토리(Guides, Catalogs & Inventories)

NARA의 가이드는 특정 주제의 연구자에게 관련 있는 소장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검색도구이다.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군(Record Group)에 관한 설명과 색인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기록 생산기관 정보, 소장위치 정보, 이용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가이드의 주제는 역사(History), 연방 기록(Federal Records), 전쟁(War), 의회기록(Record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족보학(Genealogical Research)²⁾ 등이 있다.

목록집(List, Catalog)은 NARA에서 소장 중인 종이문서와 마이크로필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관련 기록물에 관한 목록집, 등대도면(Lighthouse Plans)에 관한 목록집, 족보학 관련 기록물에 관한 목록집 등 다양한 주제가 있다.

2) 참고정보 안내서(Reference information Papers)

참고 정보 안내서는 미국 국립 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주제는 동일하지만 다른 레코드 그룹에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참고 안내서이다.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원을 폭 넓게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왕국과 소련 정부', '중세시대', '1930-1960년대 범죄기록', '세관국의 통계정보' 등 94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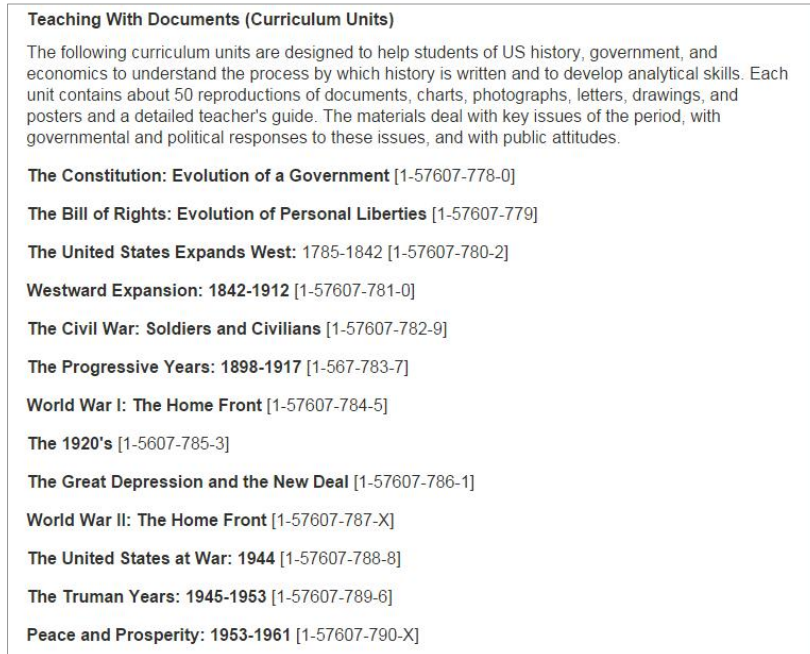
다양한 주제의 참고 정보 안내서가 발간되었다.

일반적으로 참고 정보 안내서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원의 제목(Title), 편집자(Compiler), 페이지 수(Number of pages), 출판물의 범위(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publication),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의 이용가능성(Additional availability information), 주제와 관련한 기록정보의 양(Measurements)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 정보 안내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는 NARA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3) 교육용 출판물(Publications for Teachers)

NARA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있는 주제에 관한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미국의 역사, 권리장전(Bill of Rights), 여성 청원운동, 미국 헌법과 의회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그 중 수업 보조자료(Teaching Aids)의 『Teaching With Documents(Curriculum Units)』는 미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용으로 발행된 교육 자료집이다(NARA. Teaching Aids). <그림 2>와 같이 시대별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등 역사가 쓰여진 과정과 각 시대의 핵심 사건을 다루는 자료 및 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여론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닛은 약 50건의 문서, 차트, 사진, 편지, 도면, 포스터 등과 교사용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2) 족보학(genealogy)은 유산의 상속이나 왕위의 계승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족보를 연구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인물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네이버 두산백과)



〈그림 2〉 「Teaching With Documents(Curriculum Units)」의 구성요소
출처: NARA. Teaching Aids

4) 기록전문가용 출판물

NARA에서 발간하는 기록전문가용 출판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록학 관련 이론서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는 기록보존소의 관리 이론과 그 이론을 재검토한 논문 및 기록학 원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정책, 매뉴얼 등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매뉴얼을 책자, 브로셔, 팜플렛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Management of Archives』는 기록보존소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매뉴얼로서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Making Archiv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에서는 시각·청각·언어·신체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지적·물리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일반 정보 소책자(General Information Leaflets)

NARA의 일반 정보 소책자는 각 기관의 소개, 위치, 소장기록물 등 전반적인 기관의 소개와 이용 안내를 제공하는 소책자 형태의 출판물이다. 'NARA', '워싱턴 레코드 센터', '전자기록 센터', '대통령 도서관' 등 각 기관마다 일반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한다.

6) 법률 관련 출판물(Legal Publications)

NARA의 연방관보부에서는 연방정부의 공

공법 및 개인법,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문서 규정 등 각종 법률·법규·정책 등을 책자로 발간하고,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슈와 기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정보를 편집하여 신문 형태의 「일간 연방관보(the daily newspaper of the Federal government)」를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연방정부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7) 자료집

NAR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자료집을 발간한다. 첫째, 특정 주제에 관한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자료집 및 사진집을 발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둘째, NARA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현재까지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 미국 헌법 등 미국 역사의 다양한 주제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NARA는 독자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다른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자료집을 발간한다. NARA와 협력하여 자료집을 발간한 외부기관은 '워싱턴 대학교 신문사(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백악관 역사협회(White House Historical Society)'가 있고, 'Scholarly Resources', 'Golden Owl Publishing' 등의 출판사 등이 있다.

8) 잡지(Magazine)

NARA에서 출판하는 잡지는 NARA, 지방 기록보존소(regional archives), 대통령 도서관 등 미국의 각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장 중인 풍부한 소장 자료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잡지로는 「프롤로그 매거진(Prologue Magazine)」이 있다. 프롤로그 매거진은 약 50년 전부터 계간

으로 발행되었으며, 국립 기록보존소의 풍부한 소장 기록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기관의 정보를 전국의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온라인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9) 기타

NARA에서는 기념품 및 포스터 등 다양한 이벤트성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유 헌장 등에 관련되어 당시에 제작된 포스터를 복제본으로 제작해 인쇄 자료로 제공하고,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기념일,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품을 책자 형태로 발간한다.

3.1.2 NARA의 출판 담당 조직과 출판 활동

NARA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출판물은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cords Services)'와 '지방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gional Records Services)'에서 담당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역사편찬위원회(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NHPRC)', '연방관보부(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대통령도서관부(Office of Presidential Libraries)', '전략커뮤니케이션부(Office Strategy and Communications)' 등 NARA의 여러 부서에서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NARA, Publications). 각 조직의 출판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cords Services)
기록서비스부는 출판, 교육, 강연, 전시 등 일

반 대중 및 학술 연구자를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활동과 의회기록 서비스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기록서비스부의 업무는 첫째로 미국의 상원 및 하원, 입법관련 기관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입법기록 관리와 더불어 미국 입법기관의 행정사 연구(research in the administrative history)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 기록물을 설명한 가이드, 목록집, 인벤토리 등을 발간하여 제공한다.

둘째로 지방기록관인 주립기록보존소를 포함해 NARA의 전국적인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계획·개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지방기록정보서비스부와 정책수립담당부서와 협력하여 기록관리 정책 및 안내서, 브리핑, 뉴스레터 등 기록관리 업무에 관련된 출판물을 발간하여 외부와 내부기관에 제공한다.

셋째로 연방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록관리지

침·정책·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발간하여 배포하여 기관의 기록 생산, 관리, 처분 등 기록관리 업무가 기록생애주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NARA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출판 프로그램의 검토, 교정, 그래픽, 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NARA의 모든 출판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NARA, 2009a).

2) 지방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gional Records Services)

지방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gional Records Services)는 NARA에 소속된 각 지방기록관(regional archives)들과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 기록서비스부는 지방기록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각 지방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조사하여 이용자를 위한 검색 도구로 가이드, 목록집, 인벤토리 등을 발간하고 지방의 특색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엮은 자료집 출판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지방기록서비스부의 출판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은 기록서비스과와

<표 3> NARA 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cords Services) 출판 관련 규정

입법기록 (Legislative Archives) 출판 활동	▶ 의회 및 입법기관의 행정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입법 기록의 기원, 분류체계, 콘텐츠, 기술적·법적 문제 (Technical and legal problems) 등을 분석하고, 기록물 이용을 위한 설명가이드, 목록집, 인벤토리 등의 검색도구를 준비한다.
현대 기록프로그램 (Modern Records Programs) 지원	▶ 지방기록서비스부(Office of Regional Records Services)와 정책수립담당직원(the Policy and Planning Staff)과 함께 협력하여 기록관리정책, 안내서, 기록정보의 공식 발행 절차, 출판물, 브리핑, 뉴스레터, 직원교육 등 NARA의 내부와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록생애주기 관리 분야 (Lifecycle Management Division)	▶ NARA의 기록관리지침과 정책,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여 워싱턴 D.C의 연방기관에 배포하여 기록생산, 관리, 처분 등 기록생애주기에 맞추어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출처: NARA (2009a)

협력하여 이루어진다(NARA, 2009a). 즉, 미국의 각 지방기록관에서 개별적으로 출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NARA의 지방 기록서비스부에서 지방기록관과 연계하여 출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국립역사편찬위원회(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NHPRC)

국립역사편찬위원회는 NARA와 제휴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국 역사와 관련된 문서자료(documentary sources)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의 보존활동과 역사 문서를 활용한 출판 활동 등을 지원한다. 1934년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아키비스트(archivists), 역사가(historians), 문서 편집자(documentary editors), 기록관리담당자(records administrators)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개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grant)을 제공하여 출판 프로젝트, 기록보존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국립역사편찬위원회의 출판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국 역사 연구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데 있다.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출판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RA의 소장기록물 중 출판 주제에 관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해당 문서를 번역 및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한다. 둘째, 중요 기록물의 보존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기록물의 원본 그대로 마이크로필름화한다. 셋째, 주요 기록물을 전자 형태 문서로 변환시킨다. 이 때, 문서의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설명, 번역 등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넷째, NARA의 주요 출판물의 내용을 전자형태로 변환한다. 문서 출판의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망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출판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프로젝트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206).

4) 연방관보부(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연방관보부는(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연방정부 일간신문(the daily newspaper of the Federal government)’ 등 연방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담당하여 발간하는 부서이다. 연방관보부는 연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연방기록물 및 연방기관 규정관련 문서들을 편집하여 연방관보를 정부간행물 형태로 발간한다.

연방관보는 대통령령 및 선언문 등을 포함한 대통령 문서, 정책과 규정의 설명 및 해석을 포함한 규칙 및 규정, 규정 제정을 위해 제출된 청원 및 제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 공개 예정인 청문회·회의 등의 일정, 행정명령, 허가 신청 등의 공고문 등의 범주로 구성된다.³⁾ 따라서 연방관보부에서는 연방관보를 편찬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문서를 분석하고 연방관보의 범주에 맞게끔 편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3) NARA 연방관보 소개 웹페이지.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the-federal-register/about.html#whereis>

3.1.3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NARA의 출판물 현황과 각 조직의 출판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NARA의 출판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폭넓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출판물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앞서 출판물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NARA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운영 방침, 다른 컬렉션에 보존되어 있는 동일한 주제의 기록물에 관한 안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 연방 정부의 정책·규정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지 등 폭넓은 범위의 출판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다. 즉, NARA의 출판프로그램은 소장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가이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장기록물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거나 각종 정보를 사전에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출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내부의 직원들만 출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회, 출판사, 다른 공공기관, 개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의 전문가들이 출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국립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법인단체와 제휴하여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출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두어 다양한 주제의 출판물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다.

셋째, NARA의 '기록서비스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출판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록서비스부'에서 출판 프로그램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비슷한 성격의 출판물을 제작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부서의 출판물 제작과정을 지원하고 감독하여 보다 양질의 출판물이 제작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출판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2 국가기록원 출판 프로그램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열람 등의 업무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자층을 구성하기 위한 서비스는 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은 주로 기록물을 주제별·연대별·매체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주제형 자료집·목록집·지침서·용어집 등을 출판했다.

1992년에는 목록집이 아니라 기록물의 내용을 소개하는 해제집이 출판되었다. 이때 출판된 일제문서해제선집은 조선총독부기록물 가운데 일부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기록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09). 지금까지 살펴본 1998년 이전의 출판물 종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기록물을 활용한 출판물은 거의 없었고,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의 활동을 알리는 <기록보존 소식지>가 발행되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기록수집과 보존, 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공기록관리 체계와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용자에게 웹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표 4〉 1998년 이전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 출판물 종류

구 분	출판물명
목록집	보존문서 목록 (1~2집)
	보존문서 색인목록 (1~2집)
	문서총괄목록 (1~10집)
	정부행정자료실 소장자료목록 (1~15집)
	해외소재 한국관계 기록물 목록
	특수기록물 목록 (제1집)
	문서색인목록
	사진필름원판목록 (제1집)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총괄목록 (1~17집)	
해제집	일제문서해제선집

국가기록원의 서비스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기록원은 중요 기록물의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고, 기록 관리혁신로드맵의 하나로 공공기록물을 활용한 서비스를 결정하여 콘텐츠 개발과 출판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국가기록원, 2009).

이제 국가기록원은 매년 자료집, 해제집, 가이드, 교육용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된 자료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과 형태별로 나누어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출판물은 모두 웹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3.2.1 국가기록원 출판물 현황⁴⁾

국가기록원의 출판물은 출판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진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출간된 출판물들을 형태와 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각각의 출판물의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이드

국가기록원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1,2권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1,300여 개의 기록물군과 17개의 컬렉션 중에서 373개의 중앙행정기관 기록물군 및 컬렉션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관받은 기록물을 기록물군별로 나누어 기술했다. 간략한 기록물 종류와 생산 정보, 형태 및 내용 정보, 생산기관, 기관 연혁, 수량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기록물을 이용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컬렉션을 주제별로 나누어 가이드를 제작하기도 했다. 2008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기록물 컬렉션 가이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 14,000여 권에 대한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2009년에 발간된 「해외 기록물 컬렉

4)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next/news/publicationList.do>)의 내용과 「국가기록원 발간도서·온라인 콘텐츠 가이드북」(국가기록원, 2011)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5〉 국가기록원 출판물의 형태와 종류

구 분	방 식	내 용
가이드	소장기록물 이용을 위해 기록물 군(群)과 컬렉션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 조선총독부 기록물 및 해외기록물 컬렉션 가이드 •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 가이드북 • 대통령 기록물 목록집 등
자료집, 해제집	해당 분야 자료 중 독해가 곤란한 한자, 외국어 등을 번역한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 한국전쟁과 중국 • 한·미 관계 자료집 등
	중요기록물의 철·건별 내용 및 기록의 가치와 의미 등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해설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문서 해제집,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 • 공개재분류 중요기록물 해제집 등
기록 활용 교육교재 및 교양도서	소장문서 및 사진 등을 활용한 교양도서 및 중·고등학생용 교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이 있는 역사교실 •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등
기록관리 교육교재	기록관리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과 및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실무, 운영지침, 신규 기록관리전문요원 교육, 분류·평가 업무 지침 등의 기록관리업무 교육교재
법령·표준 해설집 및 매뉴얼	기록관리 법령 및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집 및 해설집 • 기록관리 국가표준 해설집 • 각종 기록관리 관련 표준집 (시스템, 운영 표준 등) • 각종 기록관리 업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해외 기록관리 제도 및 법규집 등
백서·연보	국가기록원의 주요 업무 및 기록관리 관련 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백서 및 연보 • 국가기록원 40년사 • 각종 기록 전시회 및 사업 관련 백서 등
학술 세미나 자료집	국내외에서 개최된 기록학 포럼 및 각종 학술세미나 내용을 담은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포럼 자료집 • 기록관리 표준, 기록보존기술,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자료집 • EASTICA 세미나, 한·중 기록관리 정책토론회 등의 국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잡지	기록관리 분야의 최신정보와 연구동향, 등을 소개하는 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보존, 기록인(IN) 등
연구 보고서	국가기록원이 직접하거나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실행한 연구의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 효율적인 기록관리, 구술채록, 법령제정, 각종 표준 등 기록관리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

선 가이드」는 미국의 NARA와 역대 대통령기록관, 일본의 후생성, 노동성,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등에서 수집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11개 컬렉션, 2,230철, 61,412건) 정보를 정리한 목록·기술서이다. 2009년과 2010년에 발간된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

가이드북」은 사회·경제 분야 기관과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검찰청 등 특수기록관이 있는 기관들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에서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들을 공개로 분류한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대통령기록물 목록집』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위원회, 자문기관 등 각급 기관에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문서의 목록을 정리한 책이다. 2015년까지 이승만·윤보선 편, 박정희 편, 김대중 편, 김영삼 편, 전두환 편, 노태우 편, 최규하·박충훈 권한대행 편이 발간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시리즈와 더불어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과 역대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정리·기술한 『대통령선물 기술서집』 등도 발간되었다.

2) 자료집, 해제집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대표적인 자료집으로는 먼저 2006년과 2007년에 발간된 1960대와 1970년대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상·하)』와 『1970년대 한미관계(상·하)』가 있다. 이 자료집들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기록물 중에서 <국가안보 파일(National Security Files)>, <대통령 집무실 파일(President's Official Files)>, <백악관 주제 파일(White House Subject Files)> 등의 주요 기록물들과 미국 포드 대통령 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한국관련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번역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드 대통령 당시의 국내외 정치 상황과 한·미 관계, 핵과 미사일 개발 및 한국 정치상황(긴급조치)에 대한 개입 문제 등의 쟁점 사항 등의 해설도 같이 수록하고 있다.

해제집은 자료집과 비슷한 형태로 특정 분야의 기록을 엮어서 기록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기록물의 철·건 별 내용 및 기록의 가치와 의미 등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국가기록원의

가장 대표적인 해제집은 『일제문서해제』 시리즈이다. 『일제문서해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조선총독부 기록물 14,000권의 생산 배경 및 과정 등을 정리·분석한 자료이다. 2000년 일제문서해제 ‘경무원’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3) 기록 활용 교육교재 및 교양도서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을 활용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 발간한 『기록이 있는 역사교실 I』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수립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주제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등을 수록하여 학습부교재로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을 활용한 교양도서도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 발간한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 변화를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사진과 문서를 통해 보여준다. 2008년에 발간한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김창룡 저격사건, 진보당 사건,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등의 사건을 ‘공안사범기록’과 ‘판결문’ 등의 관련 기록물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4) 기록관리 교육 교재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교재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실무담당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발간하는 교재로 각 과정별로 매년 1~3권 정도 발간된다. 둘째, 『기록관리 길라잡이』,

『기록관리 실무』 등 교육원이나 각급 기관에서 기록관리 교육 시 활용하는 공통교재가 있다. 셋째, 『처리과 운영표준』, 『기록관 운영표준』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 시 과목 강의에서 보조자료로 쓰이는 보충 교재가 있다.

5) 법령·표준 해설집 및 매뉴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업무매뉴얼』, 『기록물관리기관 공개관리매뉴얼』,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 『비밀기록물 재분류 매뉴얼』, 『영구기록물 기술 지침』 등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 및 지침을 발간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각급 기관 별로 해야 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상세히 설명해주어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등 외국 기록관리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령, 표준, 선진사례 등을 발간하여 업무담당자와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6) 백서·연보

국가기록원은 2005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 실행한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국가기록백서』를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 기록엑스포백서』,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백서』 등과 같이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각종 전시회 및 행사의 내용, 준비과정, 실행과정 등을 담은 백서들을 발간하였다.

7) 학술세미나 자료집

학술세미나 자료집은 국가기록원이 개최한 포럼 및 세미나의 발표내용을 담은 자료집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기록관리 포럼’ 등과

같은 기록관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와 관련된 발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8) 잡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하는 잡지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와 소식지를 결합한 형태로 발간된다. 『기록인(IN)』은 기획 특집, 이슈와 활동, 기록의 발견, 국제활동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국내외 기록관리 관련 최신 연구 및 정책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연구보고서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분야의 혁신을 위해 2004년부터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양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지방기록관리 혁신, 구술채록, 법령제정, 전자기록 표준, 종이·전자매체·시청각 및 행정박물 등 매체별 보존·복원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연구결과물을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3.2.2 국가기록원의 출판 프로세스

국가기록원은 출판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책자원을 정보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기록물 이용 촉진을 위해 기록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소장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출판물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장기록물 분석에 기반하

여 출판프로그램을 이용자 구분, 주제,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국가기록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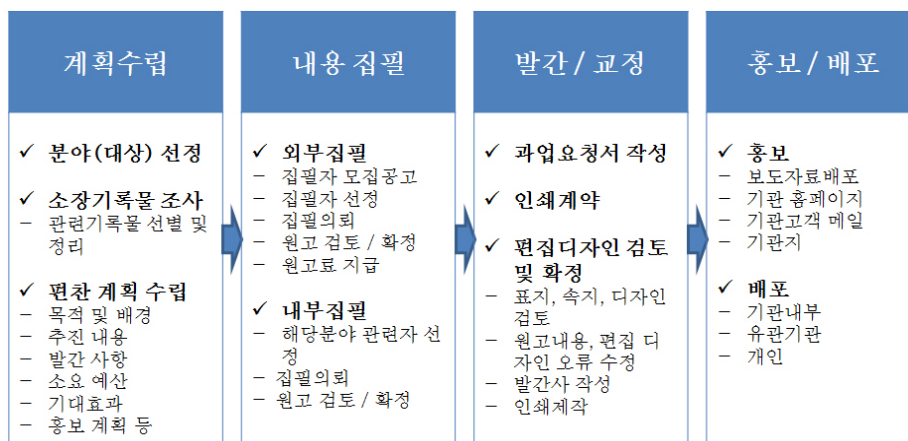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의 출판물은 형태와 내용에 따라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담당하여 출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콘텐츠기획과'는 편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여 매년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콘텐츠기획과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등의 자료집과 「일제문서 해제 시리즈」,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시리즈」, 「해외수집기록물 해제 시리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잡지인 「기록인(IN)」을 담당하여 발간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1).

콘텐츠기획과 이외의 부서들도 담당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공개서비스과'는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기록물 검색도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영구 기록물 기술

지침」 등의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표준협력과'는 「기록관 운영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표준」, 「기록관리 국가표준 해설집」 등의 기록관리 표준 및 해설집과 「영국의 기록물 생산기관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표준시리즈」, 「호주의 기록관리 재난대비 표준」 등 각종 해외 기관 표준을 발간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1).

이와 같이 국가기록원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모든 부서의 출판 프로세스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출판 프로세스는 크게 "계획수립", "내용집필", "발간 및 교정", "홍보 및 배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5a). <그림 3>은 국가기록원의 출판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먼저 소장기록물을 활용하여 출판할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가 확정되면 소장기록물을 조사하여 관련 기록물을 선별



<그림 3> 국가기록원 출판 프로세스

출처: 국가기록원 (2015a)

하고 정리한다. 국가기록원의 편찬 대상 기록물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표 6〉참고). 첫 번째 선정기준은 활용성이 높을만한 기록물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정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관심이 집중된 국가 주요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에 관련된 기록물,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역사, 사회 등)와 연계된 기록물, 사회변화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 등의 기록물이 우선적으로 선별된다(국가기록원, 2012).

두 번째 선정기준은 기록물 생산 주체에 따라 편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기관마다 생산하는 기록물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기록물을 엮어 편찬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주로 국정분야별 주요정책 및 계획관련 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을 모아 국정분야별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속발간물로 편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연계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및 해당기관의 고유 정책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도 주요 편찬대상이 된다. 민간

기록물 중 공공기관 생산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기록물과 해외 기록물 중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기록물도 편찬 대상으로 선정된다(국가기록원, 2012).

내용집필 단계에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집필방법을 선정한다. 집필의 방법은 외부 집필과 내부 집필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주로 공모를 통해 외부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은 국가기록원의 담당부서에서 실행한다. 집필자의 선정 요건은 관련 주제의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선정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집필자가 결정된다. 집필자가 선정되면 집필을 의뢰하고 작성된 원고를 검토한다. 원고가 확정되면 원고료를 지급한다(국가기록원, 2015a).

내부 집필은 기관 내부 직원 중 해당 분야 관련자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한다. 원고가 작성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원고를 확정한다. 집필 과정에서 외부 집필과 내부 집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에

〈표 6〉 국가기록원 편찬 대상 기록물 선정 기준

기록의 활용 강화를 위한 편찬 대상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 국민관심이 집중된 국가 주요사업, 정책, 행사 관련 기록물 -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역사, 사회 등)와 연계된 기록물 - 사회변화, 생활상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
기록물 생산 주체에 따른 편찬 대상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국정분야별 주요정책 및 계획관련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분야별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속발간물로 편찬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연계성을 갖는 기록물 및 해당기관의 고유 정책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 (민간) 공공기관 생산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기록물 - (해외) 우리나라와 관련(국민, 외교, 경제, 문화 등)된 기록물 ※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는 교양도서 편찬 포함

출처: 국가기록원 (2012). 주요 소장기록물 편찬 5개년 계획(안)

국가기록원에서 출판한 사진자료집인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내용 중 '총론', '시기별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분야는 외부 전문가의 집필 내용을 활용했고, '기록물 내용설명', '부록'분야는 소장기록물을 잘 알고 있는 내부직원이 자체 집필했다(국가기록원, 2015c).

집필이 완료되면 발간 및 교정 단계를 거쳐 실제 출판물이 제작된다. 인쇄가 완료되면 홍보 및 배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린다. 홍보 방법은 보도자료 작성하여 언론에 알리는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글을 게재하는 방법, 뉴스레터, 소식지 등의 기관지를 활용하는 방법, 기관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가기록원, 2015a).

인쇄된 출판물은 기관내부와 유관기관, 개인 등에게 출판물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2015년에 발간된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Ⅲ(1971~1980년)」의 배포계획을 살펴보면(〈표 7〉참고), 배포된 기관은 국가기록원, 입법·사법·헌법 기관, 중앙행정기관,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도서관, 학회 및 유관기관 등이 있으며, 역사학·기록학 관련 연구자 개인에게도 배포하였다(국가기록원, 2015b).

〈표 7〉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Ⅲ 배포계획

구분	부수 (총 700부)
국가기록원	95
입법·사법·헌법기관	6
중앙행정기관	47
국·공립 도서관	136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도서관	142
역사학·기록학 관련 연구자	179
학회 및 유관기관	40
자체 보관용	55

출처: 국가기록원 (2015b).

이와 같은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을 NARA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록원에는 출판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이 없고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출판 관련 규정도 없다. 국가기록원의 콘텐츠기획과에서 출판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출판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미국 NARA에서는 가이드, 인벤토리, 목록집 등의 출판물은 기록서비스부에서 발간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활용한 자료집은 국립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다.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록서비스부가 다른 부서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검토·교정·그래픽·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NARA의 모든 출판물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된 내용의 출판물 제작을 피할 수 있고, 전문적인 출판물 제작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출판 기획단계가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은 출판의 기획을 기관 내부에서 결정한 다음 집필과정부터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에게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기획안이 나오기 어렵다. 반면 NARA의 국립편찬위원회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출판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출판제안서를 심의한 후 선정하여 출판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심의를 통과하

면 제안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출판비용을 지급하여 기획단계부터 발간과정까지 모두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또한 NARA는 다양한 외부 기관 및 출판사와 협력하여 출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교 신문사', '백악관 역사협회' 등의 기관과 'Scholarly Resources', 'Golden Owl Publishing' 등의 출판사와 같이 협력하여 자료집을 발간한 경우와 같이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출판물을 NARA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 종류와 형태가 단순하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자료집이나 기록물을 해설하는 해제집 위주로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자료는 그 수가 적고, 타 정부기관이나 각 지자체 기록물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아직까진 없다. 반면, NARA의 연방관보부는 주요 연방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와 대통령 문서 등을 편집하여 『일간 연방관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 출판물은 대통령령 및 선언문 등을 포함한 대통령 문서, 정책과 규정의 설명 및 해석을 포함한 규칙 및 규정, 규정 제정을 위해 제출된 청원 및 제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 공개 예정인 청문회·회의 등의 일정, 행정명령, 허가 신청의 공고문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연방정부의 정책·규정 등을 설명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NARA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있는 주제와 관련된 소장기록물을 활용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재료를 발간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자 범위와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출판, 콘텐츠개발, 전시 등의 활동을 통한 이용자 확장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중 출판물은 휴대성이 좋고 폭넓은 범위의 이용자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록정보를 제공하여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연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출판 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물은 대부분 염가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문화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발간한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물은 소장기록물 중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희귀자료나 가치 있는 기록물 원본을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관련 주제 연구를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기록관의 이용정보·소장기록물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기록관리에 관한 지침 및 업무 내용을 설명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출판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큰 규모의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NARA와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출판관련 조직과 그 활동을 분석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출판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출판프로그램의 한

계점을 분석해보고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즉 국가기록원에는 출판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및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판 규정이 따로 없으며, 출판 기획 단계가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결정되어 국가기록원의 출판물을 NARA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 종류와 형태가 단순하다.

이러한 한계점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출판프로그램의 발전방안과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검토할만한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관 전체의 출판물 발간을 총괄하여 지원하고 검토하는 출판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출판 프로그램은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기관의 출판 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콘텐츠기획과에서 주요 업무로서 출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에서의 출판 활동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출판물이라도 발간하는 조직에 따라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조직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내용의 출판물이 각각 발간되어 예산낭비의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기획과에서 발간하는 「기록인(IN)」과 복원연구과에서 발간하는 「기록보존」은 모두 잡지 형태의 출판물이다. 같은 국가기록원의 잡지여도 기획과정과 발간과정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혀 다른 성격의 결과물이 나오고,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NARA에서는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록서비스부가 다른 부서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검토·교정·

그래픽·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NARA의 모든 출판물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한다. NARA의 기록서비스부와 같이 국가기록원에서도 콘텐츠기획과를 출판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출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출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각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비슷한 출판물의 발간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출판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NARA의 지방 기록서비스부와 같이 타 기관의 출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미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록관에서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대부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인이 모든 기록관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전문적인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는 NARA의 지방 기록서비스부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지방 기록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출판 관련 지침을 개발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등 국가기록원 외부 기관의 소장기록물도 활용할 수 있는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획 단계에서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판의 기획은 출판물의 주제·내용·형태·구성 등 전반적인 설계를 세우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국가기록원의 출판 기획은 일반적으로 기관 내부에서 진행한다. 자료집 및 해제집의

경우 기관 내부에서 소장 자료 중 특정 기준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기록물을 선정하여 출판을 기획하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일부 반영되지만 전체적인 기획의 진행은 국가기록원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양해지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미국 NARA의 국립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 발간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국립편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미국 역사와 관련된 문서를 활용한 출판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출판 제안서를 심의한 후 선정하여 출판을 기획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제안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출판비용을 지급하여 편집과정부터 발간과정까지 모두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따라서 NARA의 사례와 같이 외부의 개인 및 단체의 출판 제안서를 반영할 수 있는 출판 기획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출판물이 제작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간행되는 출판물의 주제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 NARA의 연방관보부에서 발간하는 『일간 연방관보』와 같이 타 정부기관이나 각 지자체 기록물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자기관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규정 등을 설명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관보는 각 기관별로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부 정책 및 규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NARA의 연방관보부와 같이 기록물관리기관이 주도하여 주요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 이슈가 되

는 문서나 국민이 관심 갖는 문서 등을 선별하고 편집하여 종합적인 관보 형태의 출판물을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활용하여 발간한 교육교재도 NARA와 비교했을 때 그 수학적하고 내용이 단순하다.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교육교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간한 『기록이 있는 역사교실 I』이 유일하여 소장 기록물의 출판을 통한 교육에의 기여는 미비한 편이다. 반면, 미국 NARA의 교육교재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있는 주제에 관한 소장 기록물을 활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대상 이용자층이 넓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등 내용도 다양하다. 또한 기록물 자체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재료 키트(Kit)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기록원과 NARA의 출판물을 비교했을 때 NARA의 출판물의 주제 범위가 넓고 형태와 내용이 더 다양하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기획 방식이 다양하지 못해 발생한 차이점이라 생각된다.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폭 넓은 이용자를 고려한 출판물을 발간한다면 이용자의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을 아웃리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판 서비스의 현황과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본 연구는 있었지만, 출판물의 형태별 분석과 출판 담당 조직 및 관련 규정, 절차 등을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록원에서 발간한 출판물의 이용행태까지는 다루지 못했고,

각 출판물의 세부내용까지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로 미국의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만 비교하여 해외의 다른 여러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례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NARA는 1941년부터 출판프로그램을 시작한 만큼 다른 기록물관리기관보

다 역사가 길고, 우수한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차후 이런 주제가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록관의 확장서비스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원 40년사.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1). 국가기록원 발간도서·온라인 콘텐츠 가이드북.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2). 주요 소장기록물 편찬 5개년 계획(안).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3). 2013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a). 2015 예비전문요원 기록관리 교육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b).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III 배포계획.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c).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발간 추진계획(안). 대전: 국가기록원.
- 기록학용어사전 (2008). 한국기록학회. 서울: (주)역사비평사.
- 김상호 (1998).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5(1), 465-485.
- 김상호 (2003). 미국, 영국, 호주 지방기록보존소 간행물의 유형과 성격. 서지학연구, 26, 175-196.
- 김상호 (2004). 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에 관한 고찰 - 호주와 미국, 영국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87-100.
- 김지현 (2013).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6장.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 심세현, 이성숙 (2010).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3-170.
- 윤여진 (2014). 기록정보서비스로서의 기록물 편연(編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 Gelting, M. H.. (1990). The archivist as historical researcher: Research and archivistics at the Danish State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53(1), 148-156.

Jørgensen, H. (1983). The publ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ordic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46(4), 400-413.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09a). NARA 101-NARA Organization and delegation of authority.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archives.gov/foia/directives/nara101_toc.html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09b). Select list of public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archives.gov/files/publications/general-info-leaflets/3-publications.pdf>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검색일자: 2017. 10. 10. <http://www.archives.go.kr/>

네이버 두산백과. 검색일자: 2017. 10.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859&cid=40942&categoryId=31606>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206. 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gpo.gov/fdsys/pkg/CFR-2016-title36-vol3/xml/CFR-2016-title36-vol3-part1206.xml>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bout the Federal Register. Retrieved October 15, 2017. from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the-federal-register/about.html#whereis>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eaching Aids.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archives.gov/publications/teaching-aids.html#ABC-CLIO>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ublications.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www.archives.gov/public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Dictionary of archival studies (2008).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Seoul: Yeoksabipyungsa Co, Ltd.

Kim, Jihyun (2013). Archival reference services.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cience of evidence and memory*. 3rd ed. Chapter 6.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oul: Asea-MunHwaSa.

- Kim, Sang-Ho (1998). A study on the public relation program of archives.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5(1), 465-485.
- Kim, Sang-Ho (2003). A study on the Forma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archives publications in the USA, the UK, and Australi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6, 175-196.
- Kim, Sang-Ho (2004). A study on the teaching kits provided by the National Archives in Australia, the USA, and the U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1), 87-100.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9).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69-2009*.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The publication and online contents guide book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 *Five-year plan of publication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13*.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a). *2015 Records management instruction book for prospective archivist*.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b). *A distribution plan of the 3rd catalog of agenda of Cabinet meeting*.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c). *The plan of publication of local autonomy as a record*.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Shim, Se-Hyun & Lee, Sung-Sook (2010). The present situation of publication service and improvement plans for archives - Focused 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Presentation of the 17th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3-170.
- Yoon, Yeo-Jin (2014). A study on the Pyeon-yeon(編研) as a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ogram in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